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93~11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93~111

충북도민체육대회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탐색*: AHP 기법 적용

김세명(충청북도체육회 팀장) · 김현주(충북대학교 교수) · 최중환** (충북대학교 교수)

I. 서론

충청북도체육회가 주최하는 충북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는 충청북도체육회 규약 제 4조(사업)의 2항인 '도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와 '도민체전 규정'에 의해 개최되고 있다. 청주, 괴산, 단양 등 11개 시·군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9년 제58회 대회 때는 4,606명이 참가하였다. 개최 시기는 매년 1회 개최하되 6월 둘째 주 목·금·토요일로 3일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0년 개최 종목은 육상, 축구, 테니스 등 24개 정식 종목이 개최되고 있다. 학생부 정식 종목으로는 육상, 축구, 씨름, 태권도를 개최하고 있다. 시·군 대항전으로 대회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하며, 시상은 종합시상, 학생부 시상, 종목별 시상, 개인 및 단체시상 등이 있다(충청북도체육회, 2020). 2020년 제59회 도민체전은 진천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었다.

도민체전은 196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시·군 대항 종합체육대회(제43회 전국체전 1차 예선)로 첫 대회가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도내에 보급된 전 종목 선수는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종합체육대회였다. 시·군 대항전으로 개최된 것은 1966년 제6회 대회부터이고, 시·군의 선수층에 따라 종목 폐지 및 추가는 1980년도까지 매년 마다 당시 형편에 맞도록 조정되면서 실시되었다(충청북도체육회, 2007).

개최지는 1991년까지는 대부분 청주에서 개최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내 전 시·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다. 1978년, 1979년 1980년에는 가림과 우기로 개최를 못 한 해도 있었다. 2004년에는 전국체전 충북 개최 관계로 종목별 대회로 가림하기도 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완점과 개선 대책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전북도민체전과 전북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6년 도민체전 운영개선평가회에서 보은군체육회는 통합대회 운영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충청북도체육회, 2016).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핵심어: 충북도민체육대회, AHP, 우선순위 정책

* 이 논문은 김세명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e-mail: choij@chungbuk.ac.kr

시기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도민체전 활성화로 논의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있다. 종합체점제는 종목의 순위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의 점수를 부여하고, 전 종목의 점수 합계로 종합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군간 인적자원과 시설 인프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서로 대조되는 경기력의 차이로 균형 경쟁을 통한 순위 경쟁의 의미가 퇴색되는 점이 있다. 종목의 확대 및 축소, 학생부의 참여 여부 또한 선수 수급에 차질이 없는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장의 경우 선수의 기록과 참가 선수 및 관중의 안전을 위한 공인 경기장을 종목에서는 건의하고 있으나, 도민체전의 경기운영을 한정된 개최지 예산을 감안할 때 모든 경기장을 국제 규격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참가자격은 과열된 순위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선수 영입을 제한하는 부분과, 규정된 틀 내에서의 자유로운 선수 이적에 대한 문제가 상호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도민체전은 시대의 변화와 참여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전국규모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도 매년 선수 자격, 종목 추가 또는 제외, 경기장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운영개선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최기관의 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발전 정책에 있어 무분별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시행 시기와, 정책 반영의 순서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각종 대회의 정책 우선순위 연구로 유광길(2010)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이벤트 성공 요인 우선순위는 운영의 효율성, 방문객 만족, 일반 환경 여건, 스포츠시설 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전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결과는 예산상의 문제, 숙박, 홍보 및 마케팅, 편리성, 경기장운영 및 관리, 친절성, 교통, 관광지와 연계성, 경기장 규모, 음식, 접근성, 방문객 수, 경기장 입지, 주민 참여 정도, 전문 인력 운영, 청결성 순으로 나타났다. 정경희(2012)는 생활체육 활성화 요인 우선순위 연구를 통해, 생활체육 목적, 운영, 참여율, 프로그램, 생활체육 대회의 성공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이중 생활체육 대회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는 경기장 시설, 홍보 및 마케팅, 예산확충, 경기운영, 참가조건, 개최식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규, 박수정, 박병권(2016)은 아웃레저스포츠 이벤트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로는 정책요인, 운영요인, 인프라요인 순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하위 계층 전체 우선순위는 정책개발 관련 요인, 기획 관련 요인,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요인, 홍보 관련 요인, 진행 관련 요인, 시설 관련 요인, 선수지원 관련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과 관련된 정책 순위 연구로 박봉순, 한남희(2015)는 모터스포츠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로 행·재정, 프로그램, 홍보, 조직, 지도자, 시설 순으로 도출하였다.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전체 우선순위로는 재정확보 및 세금감면 제도 도입,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인 적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민간 대회 개최, 정부의 법령제정 및 행정체계 구축, 대회 참여에 대한 인식 부족, 취

미와 삶의 질 향상 인식 부족 등으로 총 27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한 항목으로는 인재육성, 경기력 강화, 복지개선, 저변확대, 재정지원, 지도자로 나타났고(윤신혜, 2018), 한국 체조 발전을 위한 항목으로는 선수 저변확대, 지도자 처우개선, 선수 학습권 보장, 경기력 강화 및 훈련지원, 체조인 복지 개선으로 나타났다(정영미, 2011).

보디빌딩 활성화 정책 항목으로는 홍보요인, 대회 환경 요인, 운영요인, 관람 요인으로 나타났다(권순탁, 2016), 한국 골프발전을 위한 항목으로는 골프 대중화, 골프 산업 활성화, 경기력 강화 및 선수 저변확대, 체계적인 조직 운영 관리, 국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났다(정경수, 2016).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항목으로는 경기력 강화 및 훈련지원, 국제경쟁력 강화, 선수 저변확대, 미디어 노출, 심판 협회 또는 연맹 운영으로 나타났으며(최진철, 2014), 한국 풋살의 발전 항목으로는 연맹의 역할, 심판·지도자 전문성, 홍보·마케팅 전략, 리그 활성화, 전문선수 확보, 시설 자원 확충으로 나타났다(이영진, 2015).

이렇게 전국규모로 개최되는 종목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개최되는 종합체육대회에 대한 연구는 개최 시기, 전국체전 예선전 병행, 생활체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한 시(도)민체전과 생활체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박종진, 정문현, 2000)와 엘리트체육 성격의 강화, 혼합형 시상제도 개편, 전 도민 참여 종목 신설, 공격적인 홍보 활동 등을 강조한 지방 체육대회(도민체전)의 활성화 방안 연구(이규문, 유승원, 김대수, 김

현주, 2001)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도민체전은 지역민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종목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 발전을 병행하는 등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도민체전은 지역의 인구 분포와 관심 종목, 지역별 특성화 종목, 대회 개최 성격 등이 모두 달라 개최와 관련된 모든 요인이 동일하게 개최될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충북도민 화합의 장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종합대회의 연구결과와 종목의 연구결과를 예로 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도민체전의 정책 우선순위를 탐색하는 맞춤형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AHP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원칙, 즉 계층적 구조화, 우선순위 설정, 논리적 일관성 등을 따른다는 점에서 착안된 기법으로, 인간은 가장 최근에 검토한 5~10개 정도의 요소만을 인식한다는 점을 근거로 계층을 설정한다. 이를 쌍대 비교(1:1)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원리이다(Saaty, 2008). 또한 AHP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자의 감정, 직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적 사고의 틀이다(Saaty & Vargas, 1982). 이러한 과정은 대안선택의 기본 뿐 아니라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다른 기법들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김정수, 2008). 이러한 AHP 기법의 장점은 도민체전에 대한 활성화 요인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정리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체육회 체제의 도민체전의 문제점과 활성화 요인이 도출된 연구 결과(김세명, 김현주, 최종환, 2020)를 토대로 상위 항목인 대회운영, 채점, 예산지원, 경기장, 개최 종목, 선수·임원참가자격, 참여와 효과 등 7개 항목의 정책 우선순위와 각각의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항목의 우선순위를 AHP 기법을 적용하여 알아보려 한다. 또한 복합가중치를 이용하여 전체 활성화 요인의 정책 우선순위를 탐색해 그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정책의 우선순위 결과는 향후 도민체전의 주최 단체인 충청북도체육회와 주관단체인 도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종합체육대회와 종목별 대회의 정책적 우선순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와 학계 및 연구

기관 전문가로 나누어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현장전문가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자로 한정하였으며 시·군체육회 5명, 도민체전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 임직원 5명, 대회를 주최하는 시·도 직원 5명으로 하였다.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는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 관련 논문이나 저서 출판 경험, 도민체전에 참가(운영)하는 전문가로 5명을 선정하였다.

시·군체육회 현장전문가는 시체육회 과장 1명, 군체육회 사무국장 4명으로 구성하였다. 종목 전문가는 기록종목, 단체종목, 개인·단체 종목 전문이사로 하였다. 시·도체육회 전문가는 도민체전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전남·전북·강원·경기도 직원으로 선정하였다.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는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AHP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활성화 요인의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여 쌍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쌍대 비교는 두 요인을 두고 가운데 동등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9단계의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

구분	소 속	성별	연령 (M±SD)	경력 (M±SD)	학위	인원
	계		51.10±5.10	18.90±7.27		20
현 장 전문가	시·군체육회	남 5	53.40±4.63	19.00±6.29	석사 1	5
	도민체전 종목	남 4, 여 1	53.40±5.92	24.20±6.40	석사 1	5
	도체육회	남 5	49.00±2.37	20.00±4.34		5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남 5	48.60±4.54	12.40±6.37	박사 5	5

설문을 구성하는 상위항목은 대회운영, 채점, 예산지원, 경기장, 개최 종목, 선수·임원참가자격, 참여와 효과 등 7개 항목으로 정하였다.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항목의 구성으로 예산지원의 하위항목은 도체육회 예산, 시·군체육회 예산, 종목예산, 개최지 예산으로 하였다. 선수·임원 참가 자격의 하위항목은 선수 자격, 시·군 선발 제도, 등록·신청 규정으로 하였다. 경기장은 공·승인 기준, 편의시설, 안전, 사후관리로 하였다. 개최 종목은 개최 성격, 규정강화, 전국체전 선발연계, 종목확대, 학생부 개선으로 하였다. 채점은 균형 경쟁, 종합 채점제, 개최지 가산점, 전국체전 반영점수, 결승 시드 채점으로 하였다. 대회운영은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전산화, 선수 인권·안전, 입장식 간소화와 홍보 마케팅, 개최지 선정과 부대행사로 하였다. 참여와 효과는 실업팀 창단, 지도자 처우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참여로 하였다.

3. 자료처리

AHP 설문 결과에 따른 자료는 DRESS 1.7과 EXCEL 201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계층화 분석 방법에서는 일관성 비율이 0.1을 초과하면 의사결정자의 이원비교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가 되면 판단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도된 가중치를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설문의 응답에 대한 CR(일관성 비율) 값은 0.1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값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복합가중치의 산출은 쌍대 비교를 통해 상위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항목 각각의 가중치를

산출한 다음, 다시 상위항목과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복합가중치 값을 산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총 30개 하위항목에 대한 복합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대안이 종합적 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계층구조를 이루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상대적 선호도를 종합하여 대안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종합 중요도는 최종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점수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조근태, 조용근, 강형수, 2003).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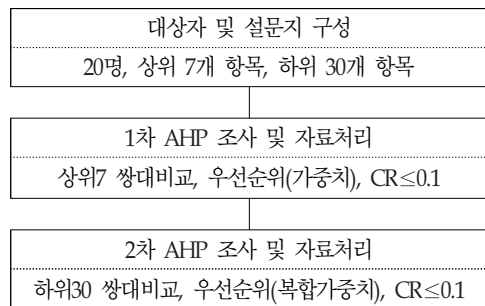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Ⅲ. 결과 및 논의

1. 상위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 활성화를 위한 상위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대회운영이 0.35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채점 개선이 0.20, 예산지원 0.14, 경기장 0.10, 개최 종목 0.09, 선수·임원

참가 자격이 0.07, 참여와 효과 0.05의 순으로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쌍대 비교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응답 정도를 확인하는 CR 값은 0.1로 분석되어 양호하게 쌍대 비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2. 상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대회운영	0.35	1	CR=0.1 (CR≤0.1)
채 점	0.20	2	
예산지원	0.14	3	
경기장	0.10	4	
개최종목	0.09	5	
선수·임원참가자격	0.07	6	
참여와 효과	0.0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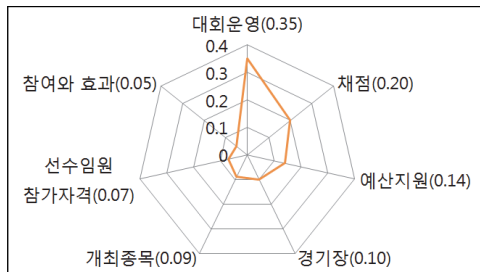


그림 2. 상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정경희(2012)는 생활체육대회의 성공 요인 우선순위 분석에서 첫 번째 경기장 시설부터 홍보 및 마케팅, 예산확충, 경기운영, 참가조건, 개최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연구의 활성화 방안 상위항목과 비교하면, 경기장 시설·경기장, 홍보 및 마케팅-대회운영, 예산확충-예산지원, 경기운영-대회운영, 참가조건-선수임원 참가자격, 개최식-대회운영으로 상호 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 경기운영, 개최식이 대회운영의 하위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유광길(2010)은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이벤트 성공 요인 평가영역을 운용의 효율성, 방문객 만족, 일반 환경 여건, 스포츠시설 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비해 본 연구가 더 세밀하게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위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경기장 항목의 우선순위가 본 연구에서는 4번째 중요요인으로 선행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선행 연구가 진행된 시기보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현대화되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대회운영이 다른 항목보다 제일 중요하게 나온 것은 유광길(2010)의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이벤트 성공 요인 평가영역 분석 결과와, 서희석, 이동기(2001)의 지역축제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참가 선수, 진행 심판, 경기장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각 성공개최를 위한 항목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2. 상위항목에 따른 하위 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 예산지원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예산지원의 하위항목의 우선순위 결과는 종목예산이 0.45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도체육회 예산 개선이 0.26, 개최지 예산 0.17, 시·군체육회 예산 0.13의 순으로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CR 값은 0.08로 분석되어 매우 양호하게 쌍대 비

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표 3. 예산지원 하위항목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종목 예산	0.45	1	CR=0.08 (CR≤0.1)
도체육회 예산	0.26	2	
개최지 예산	0.17	3	
시·군체육회예산	0.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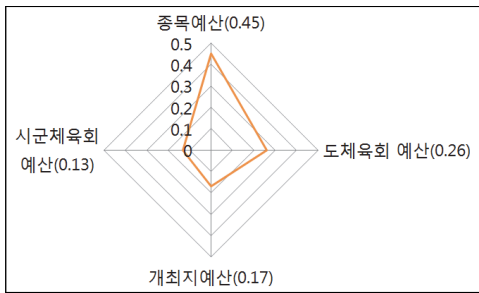


그림 3. 예산지원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예산지원에 있어서 사실 도체육회 예산과 개최지 예산은 대회를 진행하는 종목 예산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 충청북도체육회 2019년 도민체전 예산편성을 보면, 총예산 152,535,000 원 중에서 경기심판수당, 대회운영비 등 경기 진행 지원 사업비가 107,600,000원으로 69.6%를 차지한다. 개최지 예산도 경기장 신설 및 보수, 경기용 기구 구입, 개·폐회식 부대행사 비용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다.

2019년에 참가한 청주시체육회의 도민체전 예산 편성은 총 320,000,00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출전하는 선수단의 준비와 훈련비, 파견비에 집중되어 있다. 대회의 성공개최가 종목별 원활한 경기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므로, 도민체전 발전을 위해서는 종목 예산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

로는 일본의 기후현민스포츠대회처럼 행사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폐회식을 대회기간에 개최하지 않고 별도의 간담회에서 간소하게 시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기후현체육협회, 2019).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 요인에 있어 예산상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는데, 주관, 주최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예산 확보는 스포츠 이벤트의 선결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유광길, 2010).

2) 선수입원 참가자격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된 선수·입원 참가자격에 대한 결과는 등록·신청 규정 개선이 0.59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선수 자격 0.24, 시·군 선발 제도 0.17의 순으로 <표 4>와 같다. CR 값은 0.0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표 4. 선수입원 참가자격 하위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등록·신청 규정	0.59	1	CR=0.08 (CR≤0.1)
선수 자격	0.24	2	
시·군 선발 제도	0.1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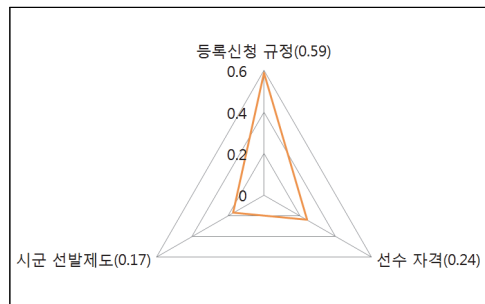


그림 4. 선수·입원 참가자격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 활성화를 위한 선수 임원 참가 자격 하위항목의 중요도에서 등록신청 규정의 개선이 첫 번째로 도출된 것은 시·군 선발 제도에 의해 출전 자격을 득한 선수들이 대회 요강의 참가자격에 의해 출전하는 과정에서 등록·신청 절차의 전산화와 등록과정과 참가신청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대회 참가에 혼선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군 선발 제도와 대회의 선수 자격은 참가하는 시·군이 동일하게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진행하지만, 선수등록과 참가신청의 규정이 보다 편리하고 전산화되어 대회 참가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종 클럽과 동호회 집단이 엘리트체육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려면 협회 차원의 선수등록이 필수적 요건이다. 최근 축구협회에서 클럽선수들을 학교 운동부의 선수들과는 차별화하되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이 등록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클럽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를 연계할 수 있는 조직,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주석범, 2006).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임원도 기존의 체육정보시스템(전문체육 선수, 지도자 등록 프로그램, 대한체육회 운영)에 전산 등록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선수, 임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2019년부터 체육정보시스템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정한 참가자격 준수의 시작이 올바른 선수등록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학생선수의 경우 학업 부진과 소양 및 학업능

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학점 하한제 도입, 미달 선수 시합 출전 금지 등이 필요하다(주석범, 2006).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도 이러한 정책의 도피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생선수들의 행복 추구권에 위배 여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전문체육 선수 육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과학 경기대회에 나가는 학생이 체력 미달로 과학경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학생선수들은 공부를 못해도, 안해도 된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에서도 운동선수에 대한 수업 진행에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인 만큼 과도한 제한 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경기장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경기장 하위항목의 결과는 안전이 0.47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공·승인 기준 0.24, 사후관리 0.16, 편의시설 0.13의 순으로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CR 값은 0.0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표 5. 경기장 하위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안 전	0.47	1	CR=0.09 (CR≤0.1)
공·승인 기준	0.24	2	
사후관리	0.16	3	
편의시설	0.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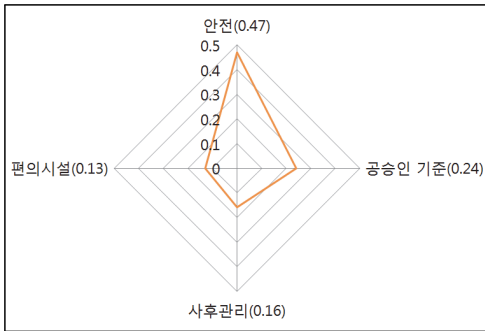


그림 5. 경기장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경기장 하위항목의 요인 중 안전에 대한 사항이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이다. 이종형(2013)은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경기장 시설에 대한 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경기장 시설환경의 부정적 결과, 경기장 안전 상태 만족도 저하를 지적하면서 선수 대기실과 관람석 구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경기장 하위 요인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경기장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공·승인 기준과 편의시설 구비, 사후관리 등은 안전한 경기 진행과 관리의 우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개최 종목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개최 종목 하위항목의 결과는 학생부 개선이 0.55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최 성격(경쟁, 저변확대 등) 0.17, 종목확대 0.12, 규정강화 0.09, 전국체전 선발연계 0.07의 순으로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CR 값은 0.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표 6. 개최종목 하위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학생부 개선	0.55	1	CR=0.07 (CR≤0.1)
개최 성격 (경쟁·저변확대 등)	0.17	2	
종목 확대	0.12	3	
규정 강화	0.09	4	
전국체전선발연계	0.0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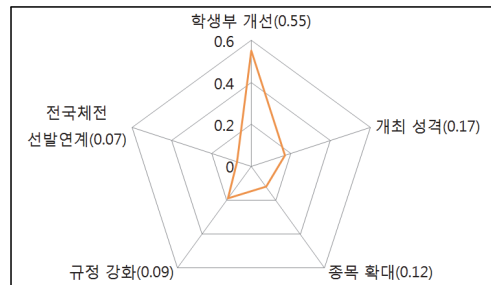


그림 6. 개최종목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에서 학생부에 대한 논의는 도민체전의 최근 운영개선평가회와 충북체육회 이사회, 충북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 되고 있다. 개최 종목에 대한 학생부의 논쟁은 일부 시·군체육회에서는 교육청의 미흡한 관심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지 등의 이유로 학생부 참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육성,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와 도민체전까지 이어지는 연계육성을 감안해 대회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9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학생부를 포함한 것은 이러한 체육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전국체전 선발연계는 해당 시·군에서 실업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체육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는 전문체육 선수의 부재로 일반 동호인이 참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체전 선발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아, 정책 순위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5) 채점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채점항목의 하위항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종합 채점제 유지가 0.59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최지 가산점 확대 0.20, 전국체전 반영점수 축소 0.12, 결승 시드 채점 개선 0.08, 균형 경쟁 유도 0.06으로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CR 값은 0.1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표 7. 채점 하위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종합채점제 유지	0.54	1	CR=0.10 (CR≤0.1)
개최지가산점 확대	0.20	2	
전국체전점수 축소	0.12	3	
결승시드채점 개선	0.08	4	
균형 경쟁 유도	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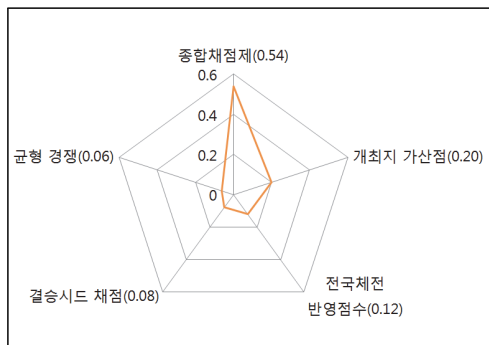


그림 7. 채점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의 운영개선평가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시·군 대항전으로 종합채점제의 유지 여부이다. 만약 종합채점제를 폐지

한다면, 채점의 하위항목인 개최지 가산점, 전국체전 반영점수, 결승 시드 채점과 시·군 간의 균형 경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이는 종합채점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많은 채점제도와 대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종합채점제도가 대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군 간 균형 경쟁을 위한 대안으로 김세명, 최종환(2018)은 전국체육대회에서 균형 경쟁을 위한 순위 결정제도 개선방안인 제한된 상위 종목의 합계 채점과 메달 합계 채점을 언급하였는데, 도민체전의 목적을 감안하여 향후 발전방안으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 영동군체육회는 채점제의 균형 경쟁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종합 득점을 제외한 메달 획득 현황만 발표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충청북도체육회, 2017).

개최지 가산점의 중요도가 두 번째로 나타난 이유는 개최지가 개최지의 자격이 아닌 일반 참가 시·군 자격으로 평상시 대회에 참가했을 때 기록한 순위보다, 개최지의 자격으로 참가했을 경우 종합 순위에서 2~3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최지는 모두가 공평하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한 지역이 반대할 제도가 아니다. 2017년 제56회 도민체전 종합 점수를 보면, 개최지인 제천시 총 25,762점 획득으로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이 중 기록 종목 가산점으로 1,523점이 더 반영되었으며, 전국체전 반영점수가 985점이 반영되었다. 2016년 제55회 도민체전에서도 개최지인 단양군은 총 획득점수 15,424점 중에 개최지 기록 점수 가산으로 629점이 반영되었고, 전국체전 반영점수는 300점이 반영되었다. 특히 단양군

의 경우 7위를 차지한 제천시와는 138점, 8위를 차지한 증평과는 316점 차이로 개최지 기록점수 추가 제도가 없었다면 종합 순위가 6위에서 8위로 떨어지게 된다.

각 시·군에서는 전국체전 반영점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강제 종목의 실업팀 창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충북체육회는 시·군 실업팀 창단 종목에 대해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업팀 창단을 통한 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도민체전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군 단위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후현민스포츠대회처럼 군 시상을 별도로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6) 대회운영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대회운영의 하위항목 분석 결과를 보면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개선이 0.53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선수 인권·안전 0.20, 전산화 0.13, 입장식 간소화와 홍보 마케팅 0.08, 개최지 선정과 부대행사 0.06의 순으로 <표 8>과 같다. CR 값은 0.0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표 8. 대회운영 하위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공정 심판과 시상제도	0.53	1	CR=0.09 (CR≤0.1)
선수 인권·안전	0.20	2	
전 산 화	0.13	3	
입장식 간소화와 홍보 마케팅	0.08	4	
개최지 선정과 부대행사	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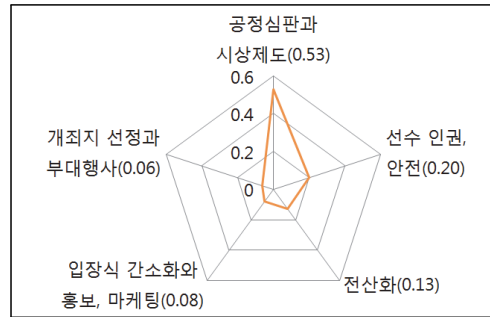


그림 8. 대회운영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대회운영의 하위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선수 인권·안전, 전산화로 나타난 것을 보면,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공정심판과 시상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입장식 간소화와 홍보·마케팅, 개최지 선정과 부대행사는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측면과, 대회 경기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으로 상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된다. 도민체전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한 대회로, 그 진행이 시·군 대항전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회의 본질은 서로의 기량을 겨루어 경기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부분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발한 홍보·마케팅에 앞서 경기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공정심판 및 시상제도, 선수단 인권과 안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참여와 효과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참여와 효과의 하위항목 결과를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가 0.47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업팀 창단 기여 0.29, 도민참여 0.16, 지도자 처우개선이 0.09의 순으로 <표 9>와 같다. CR 값은 0.0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우리나라도 관광 상품과 연계한 스포츠 이벤트가 현재보다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스포츠도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좀 더 많은 관광객 유인을 기대할 수 있는 독특한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이벤트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방지선, 2001).

표 9. 참여와 효과 하위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일관성 비율
지역 경제활성화	0.47	1	CR=0.06 (CR≤0.1)
실업팀 창단	0.29	2	
도민 참여	0.16	3	
지도자 처우개선	0.0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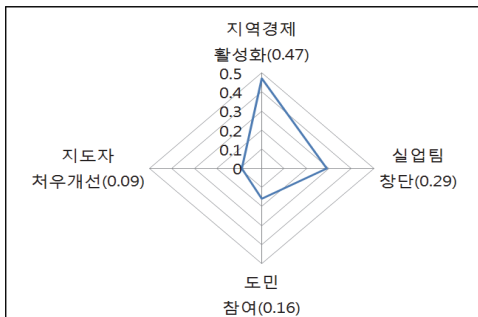


그림 9. 참여와 효과 하위항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민체전은 충북도민이 참가하는 화합의 대회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체육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개최지는 손님맞이를 위해 경기장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요식업 등 제반 분

야에 대해 점검을 한다. 개최지는 최대한 이 부분을 살려 대회기간 동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회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회 기간 찾은 선수단 개개인이 개최지의 체육 인프라와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개최지의 지역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선수단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회 기간을 현재 목~토 3일 일정에서 일요일까지 하루를 연장하여 마지막 날은 지역 선수들의 관광 일정을 안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회를 조기에 마치는 종목과 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회 기간 내에 지역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전지훈련 유치지원센터 개소를 안내하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 및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기타 국제대회 대비 방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해외 연인원 30인 이상 (연인원=체류일×체류 인원)의 선수단에게 차량, 통역, 홍보물, 기념품, 코디네이터, 투어, 환영 오·만찬을 지원할 계획이다(경상남도체육회, 2019. 5. 13). 이처럼 도민체전을 계기로 전지훈련을 오는 타 시·도 선수단에게 지역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전지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 상품의 연계 홍보를 추진해야 하며, 체전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행정이 아닌 연중 추진 업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도자 처우개선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전문체육의 지도자 육성에 비해 동호인 활동 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

회적인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개인 및 단체 팀이 존재할 경우 선수가 소수라 하더라도 전임 지도자가 배치되고 있으나, 도민체육대회 등의 경우 1년 1회성 팀 운영, 단기간의 합동 훈련 일정, 별도의 직장을 가진 지도자가 도민체육대회를 지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전문체육선수 육성, 선수 은퇴 후 전문체육 지도자 생활과 생활체육 지도자로 연계되어 운동으로 즐겁고,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항목별 최종 우선순위

최종적으로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항목별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위항목과 그에 따른 하위항목의 중요도를 토대로 복합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최종 우선순위의 구체적

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복합가중치의 산출은 쌍대 비교를 통해 상위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항목 각각의 가중치를 산출한 다음, 다시 상위항목과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복합가중치 값을 산출하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찾는 가장 일반적인 산출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총 30개 하위항목에 대한 복합가중치가 산출되었다.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도민체전의 활성화 방안의 우선순위 결과를 보면, 공정심판과 시상제도(대회운영)가 0.1855, 1위로 나타났다. 다음 상위 10위의 순위를 보면, 2위 종합채점제 유지(채점) 0.108, 3위 선수 인권, 안전(대회운영) 0.07, 4위 종목예산(예산지원) 0.063, 5위 학생부 개선(개최종목) 0.0495, 6위 안전(경기장) 0.047, 7위 전산화(대회운영) 0.0455, 8위 등록신청규정(선수입원 참가자격) 0.0413, 9위 개최지 가산점 확대(채점) 0.04, 10위 도체육회 예

표 10.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상위·하위 항목별 최종 우선순위

구분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상위 항목 (순위)	대회운영 (1)	채점 (2)	예산지원 (3)	경기장 (4)	개최 종목 (5)	선수·입원 참가자격 (6)	참여와 효과 (7)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1)	종합 채점제 유지 (2)	종목예산 (4)	안전 (6)	학생부 개선 (5)	등록신청 규정 (8)	지역 경제 활성화 (15)
	선수 인권안전 (3)	개최지 가산점 확대 (9)	도체육회 예산 (10)	공·승인 기준 (13)	개최 성격 (21)	선수 자격 (18)	실업팀 창단 (22)
하위 항목 (순위)	전산화 (7)	전국체전 반영점수 축소 (12)	개최지 예산 (14)	사후관리 (20)	종목확대 (26)	시·군 선발 제도 (25)	도민참여 (28)
	입장식 간소화와 홍보 마케팅 (11)	결승 시드 채점 개선 (19)	시·군 체육회 예산 (17)	편의시설 (23)	규정 강화 (27)		지도자 처우개선 (30)
	개최지 선정과 부대행사 (16)	균형 경쟁 유도 (24)			전국체전 선발 연계 (29)		

산(예산지원) 0.0364로 나타났다.

또한 11위는 입장식 간소화와 홍보 마케팅(대회운영) 0.028, 12위 전국체전 반영점수 축소(채점) 0.024, 13위 공·승인 기준(경기장) 0.024, 14위 개최지 예산(예산지원) 0.0238, 15위 지역 경제 활성화(참여와 효과) 0.0235, 16위 개최지 선정과 부대행사(대회운영) 0.021, 17위 시·군체육회 예산(예산 지원) 0.0182, 18위 선수 자격(선수·임원 참가자격) 0.0168, 19위 결승 시드 채점 개선(채점) 0.016, 20위 사후관리(경기장) 0.013의 순으로 나타났다.

21위는 개최 성격(개최종목) 0.0153, 22위는 실업팀 창단(참여와 효과) 0.0145, 23위 편의시설(경기장) 0.013, 24위 균형 경쟁 유도(채점) 0.012, 25위 시·군 선발 제도(선수·임원 참가자격) 0.0119, 26위 종목 확대(개최 종목) 0.0108, 27위 규정 강화(개최 종목) 0.0081, 28위 도민 참여(참여와 효과) 0.008, 29위 전국체전 선발 연계(개최 종목) 0.0063, 30위 지도자 처우 개선(참여와 효과) 0.00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전체 하위항목에 대한 최종적인 우선순위 결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10>과 같다.

최종 순위 상위 15개에 포함된 하위항목을 보면 대회운영 항목이 1, 3, 7, 11위로 15위 항목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 내에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충북체육은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양 단체가 진행에 오던 사업이 현실에 맞게 통·폐합이 진행되지 않아, 도민체전의 확대

또는 대회 축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내실 있는 대회운영을 통해 대회 자체의 성공이 현실적으로 더욱 시급한 과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통합 여부,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를 포함하는 여부, 충북소년체육대회의 사업 목적 전환 등 주변의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전국의 체육 단체는 안정적이지 못한 세입에 대해 큰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제반 사업에 대한 재고와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업은 폐지될 것이 자명하다.

2018년 개최된 제57회 도민체전은 선수 3,109명과 임원 1,520명 등 선수단만 4,629명이 참가하였고, 관계 기관 및 수행되는 인원을 보면 충북 최대의 체육 행사이면서 도민화합의 장인 축제 행사이다. 도민체전이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합대회로, 도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회로 거듭 성장해야 할 것이다.

도민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 1순위인 공정심판을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 심판 섭외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판 섭외를 위해서는 4순위의 종목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종목예산을 늘여나기 위해서는 10위의 도체육회 예산이 먼저 증액되어야 한다. 도체육회 예산이 증액되기 위해서는 28번째인 도민참여를 통한 사업의 중요성이 행정기관과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도민체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와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위가 가려져 있지만,

모든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민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0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도청,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체육

회, 충청북도체육회에 가맹된 도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시·군의회, 시·군 회원종목단체와 함께 참가하는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0.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항목별 최종 우선순위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치러지고 있는 도민체전의 운영 실태 자료를 근거로 기존 충북체육회와 충북생활체육회가 통합한 통합체육회 체제에서 도민체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민체육대회의 활성화 방안과 실행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위 7개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대회운영, 채점, 예산지원, 경기장, 개최종목, 선수·임원 참가자격, 참여와 효과 순으로 나타났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면서 자치단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이 공포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내실 있는 대회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 30개 항목의 최종 우선순위는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종합채점제 유지, 선수 인권, 안전, 종목예산, 학생부 개선, 안전, 전산화, 등록신청규정, 개최지 가산점 확대, 도체육회 예산 항목으로 시작하여 종목확대, 규정강화, 도민참여, 전국체전 선발연계, 지도자 처우개선까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순위에 있어 모든 정책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상위 우선순위의 정책 성공은 하위항목의 연계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체전이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충북체육회의 정책 추진은 시·군의 체육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민체전과 충북생활체전의 통합 운영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활성화 방안의 7개 상위항목인 '대회운영, 채점, 예산지원, 경기장, 개최 종목, 선수·임원 참가 자격, 참여와 효과' 등을 분석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30개 하위항목의 우선순위인 '공정심판과 시상제도, 종합 채점제도 유지, 선수 인권 및 안전, 종목예산, 학생부 개선' 등의 항목에 대해 시급한 정책부터 현장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도민체전의 활성화 요인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도민체전의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민체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참여하는 도민의 범위와 대회의 목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3년~5년 주기의 정기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충북소년체육대회, 도민체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의 통합, 선발전 동시 개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앞선 선진국의 체육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장점을 충청북도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개최종

목, 참가 대상, 예산지원의 범위 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체육회. 공지사항. **한국전지훈련 유치 지원센터 개소안내 및 협조요청**. 2019. 5. 13. <http://www.gnsports.or.kr/home/010101/0000/view.do>.
- 권순탁(2016). **AHP를 이용한 스포츠 이벤트 활성화 우선순위 연구-보디빌딩 대회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 기후현체육협회. **기후현민스포츠대회**. 2019년 5월 10일. <http://www.gifu-taikyo.jp/sports/sports.html>.
- 김민규, 박수정, 박병권(2016). 아웃레저스포츠 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인의 우선순위 산정. **한국체육학회지**, 55(5), 559-573.
- 김세명, 김현주, 최종환(2020). 통합체육회 체제의 충북도민체육대회 미래전망: 델파이 기법 적용.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1), 49-69.
- 김세명, 최종환(2018). 전국체육대회 시·도 균형 경쟁을 위한 순위 결정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6(2), 81-94.
- 김정수(2008). **계층분석적 의사결정에 의한 경주스포츠 고개만족도 향상 방안**.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봉순, 한남희(2015). Delphi 기법과 AHP를 이용한 모터스포츠 활성화 정책개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0(5), 57-74.
- 박종진, 정문현(2000). 시(도)민체전과 생활체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충북대 평생체육 연구소논문집**, 20, 83-97.
- 방지선(2001). 성공적 지역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선행과제. **한국체육학회지**, 40(4), 477-485.
- 서희석, 이동기(2001). 지역축제의 성공 전략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공공관리학회**, 15(2), 199-213.
- 유광길(2010). AHP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 성공요인 우선순위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5(1), 91-102.
- 윤신혜(2018).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한 요인 추출 및 우선순위 분석**. 박사학위 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이규문, 유승원, 김대수, 김현주(2001). 지방체육대회(도민체전)의 활성화 방안.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3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384-390.
- 이영진(2015). **한국 풋살의 발전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 이종형(2013).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경기장 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93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4), 13-27.
- 정경수(2016). **한국 골프발전을 위한 요인 및 우선순위 탐색**.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 정경희(2012). AHP를 적용한 생활체육 활성화 요인 우선순위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7(1), 125-134.
- 정영미(2011). **Delphi/AHP를 활용한 한국 체조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모색**.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조근태, 조용곤, 강형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 주석범(2006). **델파이 분석을 통한 엘리트 스포**

- 츠 미래전망.** 박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충청북도체육회(2007). **충북체육 60년사.** 청주: 동해사.
- 충청북도체육회(2016). **충북도민체육대회 운영 개선평가회.** 청주: 충청북도체육회.
- 충청북도체육회(2017). **충북도민체육대회 운영 개선평가회.** 청주: 충청북도체육회.
- 충청북도체육회(2020). **규정집.** 청주: 충청북도체육회.
- 최진철(2014).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Saaty, T. L.(2008).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Sciences*, 1(1), 83-98.
- Saaty, T. L. & Vargas, L. G.(1982). *The Logic of Priorities*. Boston: Kluwvr-Nijhoff.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the Priority Policy for the Promotion of the Chungbuk Sports Festival

Kim, Se-Myeong(Chungcheongbuk-do Sport Council, Team Leader)•

Kim, Hyeon-Ju(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oi, Jong-Hwa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 comprehensive sports competition hosted by the Chungbuk Sport Council, the Chungbuk Sports Festival is participated by 4,600 people from 11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The festival has been held for three days in June each year since 196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ortance and priorities for seven factors and 30 sub-factors to promote the Chungbuk Sports Festival. To this end, this study recruited a total of 20 on-site professionals and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e experts. The AHP technique was applied to a survey in order to perform a pairwise comparison between the fac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upper item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the operation of the competition, scoring, budget support, stadiums, events, eligibility for athletes and executives, and participation and effects. The composite weights calculat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upper and lower item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fair judgement and award system, the maintenance of a comprehensive scoring system, the number of athletes and safety, budget for events, the improvement of events for students, and safety.

It is required to classify policies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and those urg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and implement them first. The size and purpose of municipal sports events can chang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Going forward, it is necessary to perform studies on a regular basis and conduct follow-up research on the sports events in advanced countries.

Key words : Chungbuk Sports Festival, AHP, Priority Policy